	인도 (뉴 델리) 통상 사무소 해외 동향 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승창 소장
		일시	2022.09.25

CEPA Insight

- 인도 국내총생산(GDP)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
- 인도, 반도체칩 핵심 주체가 되기 위해 제조 공장 유치 박차

< 2022년 8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1,633,353천불	27.0%	683,259천불	-22.4%	950,094천불
충남	284,270천불	65.5%	15,264천불	-64.2%	269,006천불

※ 출처 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■ 인도, 식민 종주국 영국 제치고 GDP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

- 2022년 1분기 인도 GDP, 영국 앞지르며 8,547억 달러 기록함
- 2021년 인도 GDP 규모는 3조1733억 달러로, 영국 GDP(3조1868억 달러)다음으로 세계6위를 기록하였으나, 2022년 1분기 양국 간 GDP규모는 역적이 됨. 이는 인도가 식민 종주국 영국을 따라잡은 것은 처음이며,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함.

※ 2022년 1분기 인도 GDP규모는 8,547억 달러, 영국 GDP규모는 8,160억 달러 기록함

(출처 : 국제통화기금(IMF) 추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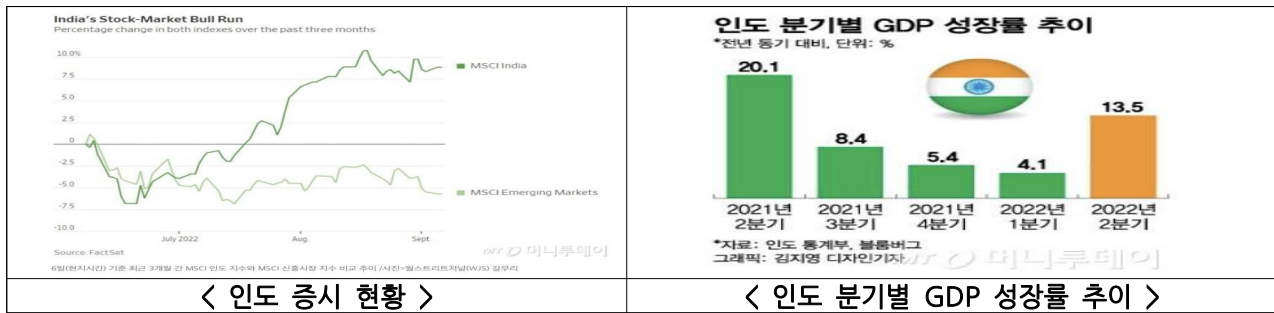
- 영국이 40년 내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침체 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에, 인도는 착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며,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13.5%를 기록함(출처 : 뉴스1, 2022. 09. 03)

※ '21년 국가별 GDP순위 : (1위) 미국 > (2위) 중국 > (3위) 일본 > (4위) 독일 > (10위) 한국

※ GDP규모: (미국) \$22조9961억불, (중국) \$17조7340억불, (일본) \$4조9374억불, (독일) \$4조2231억불, (한국) \$1조8102억불

-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, 인도 증시가 상승세
- 인도 BSE센섹스지수는 지난 7월 이후 이달 14일까지 14.06% 상승하였으며, 해당기간 동안 S&P500지수가 2.81% 상승하고, MSCI신흥국지수는 3.05%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두드러짐. 인도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지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
(출처 : 한경 글로벌마켓, 2022. 09. 15)



■ 베단타 · 폭스콘, 26조 규모 인도 반도체 공장 설립 합의

- 인도, 반도체칩 제조공장 유치 박차, 나렌드라 모디 총리 고향 구자라트에 입지선정 마쳐
인도의 한계점을 넘어 앞으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
- 영국계 금속기업 베단타와 대만 폭스콘은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의 고향 구자라트에 195억 달러(약 26조 8000억 원) 규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협약에 서명함
- 이들 기업은 구자라트 최대 도시 아메다바다 인근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별도의 공장을 지을 계획임. 이를 통해 10만 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임.
- 인도 정부는 반도체 제조 투자자에 대해 최대 100억 달러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함. 반도체 칩 공급망의 핵심 주체가 되는 것이 인도 정부의 목표임(출처 : 뉴스원 / 2022. 09. 13)
- 지난 7월, 싱가포르의 IGSS벤처가 남부 타밀나두주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고며, 주정부와 업무협약(MOU)을 맺었으며, 투자규모는 2천560억루피(약 4조 5천억원)임
- 반도체 제조에는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, 충분한 물, 깨끗한 공기,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복합적으로 필요하지만, 인도에는 해당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자와 정보기술 역량을 갖췄음에도 제조보다는 연구개발, 디자인 분야에 집중해옴
- 그러나 모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향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(출처 : 매일경제 / 2022 . 09. 14.)

■ 인도 현지 시장의 성장세에 맞는 진출방안 모색 필요

- 인도는 GDP, 증시 등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시장으로 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함
- 현재 인도는 다양한 경제지표에서 코로나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, 14억 인구를 가진 국가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.
- 도내 벤처기업이 시장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, 현지기업과 합작투자형태로 시장 진출을 고려해볼 만함. 끝.